

# ‘유통 공룡’ 잇따라 상륙...아우성치는 지역상권

무안군 남악 복합 쇼핑몰과 목포시 하당 대형마트 입점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광기반 확충 등 장밋빛 전망 속에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려 입점 반대 투쟁에 나서고,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등 전방위적 대응도 주변 지자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유통 대기업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대책 등을 짚어봤다.

## 남악 복합쇼핑몰 내달 착공·하당 홈플러스 연말 착공 앞뒤 입점반대 추진위원회 출범...목포시·의회도 대처 방안 모색

◇유통 공룡의 진출과 파장=남악신도시 남악골프클럽 앞 부지(6만4922㎡)에 건립되는 복합쇼핑몰(건축주 GS 리테일)은 오는 6월 착공, 내년 9월 완공 예정이다. 대형마트는 연건축면적 1만4222㎡에 지상2층, 아웃렛은 연건축면적 3만1206㎡에 지상3층 규모로 주차 면은 1010대다. 또 하당 포르모 옆에 들어서는 대형 마트(홈플러스)는 연건축면적 3만5300㎡에 지상 4층 규모로 주차면 541대다. 오는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들 유통 대기업의 상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대형아웃렛 출점 뒤 소상공인 매출을 조사(2014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1개 업체당 연평균 매출이 1억 6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영업이익도 495만2000원에서 251만3000원으로 뚝 떨어졌고, 하루 평균 방문 고객 숫자도 4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식당의 경우 대형 식당은 30~40%, 중·소형 식당 80%가 붕괴됐고 이·미용, 편의점, 식료품, 배달업 등 개인 서비스업도 40%가 무너졌다. 가장 심한 업종은 의류로 60~70%가 문을 닫았다. 또 거리별 매출 피해(중소기업점 자료)는 1km 이내 38.2%, 5km 이내 34.7%, 10km 이내 51.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세지는 입점 반대=목포·무안지역의 상인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대형쇼핑몰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전경선, 나웅)’는 지난 29일 오거리 문화재단에서 2차 설명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일 하당 장미의 거리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입점반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전경선 공동위원장은 “대형 쇼핑몰이 입점하게 되면 지역내 상권이 초도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권이 살아야 된다”면서 “대기업들의 꿈수에 수수방관하는 지자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에 이제는 지역상공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 참석차 경기도 이천에서 온 초철현 이천시 상인회장은 실제 경험한 피해사례를 예로 들면서 “초창기에는 상인들이 반신반의해 호응이 적지만 입점 후 1년이 지나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며 “상인들의 단결만이 입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남악 인근 일부 주민들은 대형마트 입점을 반기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트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자구책 마련 노력=지난 1997년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등록 형식만 갖추면 건축허가가 가능해 입점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쪽은 목포시와 시의회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상권이 대기업에 의해 잠식당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대규모 점포 입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해 하루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오 시의회의장은 무안의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무안·신안·함평군의회의 의장들과 4지회동을 갖고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이



▲목포시 하당에 들어설 홈플러스 건립 부지. 오는 연말 착공 예정이다.



▲남악신도시에 건립되는 복합쇼핑몰 조감도.



목포·무안 지역 상인들이 지난 1일 목포시 하당 장미의 거리에서 ‘대형 쇼핑몰 입점반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있다.

자리에서 조 의장은 중복된 의료 메이커들의 입점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조 의장은 “7월 정례회 때 순천·여수시의 사례를 검토한 뒤 목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

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처럼 시와 시의회가 우선 ‘중복된 메이커 입점 축소’와 ‘상권 보호 관련 조례 제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임영춘·고규석 기자 lyc@

## 아파트 신축공사장 침수사고 목포시 신속 대처 피해 줄여

목포시가 지난 29일 대성지구 LH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침수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줄였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새벽 1시께 집중호우로 인해 LH아파트 현장 주변 도로에 물이 차오르면서 주택, 상가, 차량 등 총 14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관계부서와 현장에 상주중인 장비와 인력을 소집해 배수 작업에 착수, 새벽 3시께 침수를 차단하고 피해복구에 돌입했다. 시는 준설차 등 차량 2대와 25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침수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목포경찰서와 소방서에서도 교통통제, 침수복구 차량, 인력 등을 지원해 힘을 보탰다. 시는 이번 침수가 예상보다 많은 강우량과 LH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의 하수관로 작업 중 우회 배수로의 적절한 설치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공사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복구 기간 동안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재산적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다도해·목포대교 한눈에 조망 유달산 후사면 둘레길 생겼다



목포시가 유달산 후사면 둘레길(사진)을 새롭게 개설해 지난 1일 개통했다. 신규 개설된 둘레길은 아리랑고개에서 동백숲길, 낙조대를 지나 기존 등산로와 연결되는 1.1km 구간이다. 시는 기존 등산로 가운데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바위너널 구간을 우회하는 숲길을 개설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름다운 다도해와 목포대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낙조대를 경유하도록 하고, 동백나무와 아카시아 군락지를 활용한 숲체험 공간도 마련해 여유있는 휴식과 힐링의 명품 둘레길이 되도록 조성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둘레길 구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하는 등 유달산 관광상품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인 예비간호사들이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게 해주는 촛불처럼 환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목포대학교 간호학과는 최근 박물관 대강당에서 예비간호사 65명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선서식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게 해주는 촛불처럼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간호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선서식을 마친 학생들은 4일부터 광주·전남 지역 소재 병원 및 보건소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대 간호학과는 지속적인 수도권 등 지역거점 보건의료시설에서의 다양한 임상실습과 함께 교내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참된 인성과 전문적 자질을 갖춘 역량 있는 간호인을 양성하는데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b>근린상가 단독주택</b> 나대지 원룸	<b>담보 비율</b> : 최대 70% <b>최저 연</b> 3.8%~	<b>신용대출 (급여소득자)</b> (연금수급자)
<b>대출한도</b> : 최대 5,000만원 <b>상환방법</b> : 원금균등상환 <b>대출기간</b> : 최대 5년 <b>연금리</b>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천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최소 월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